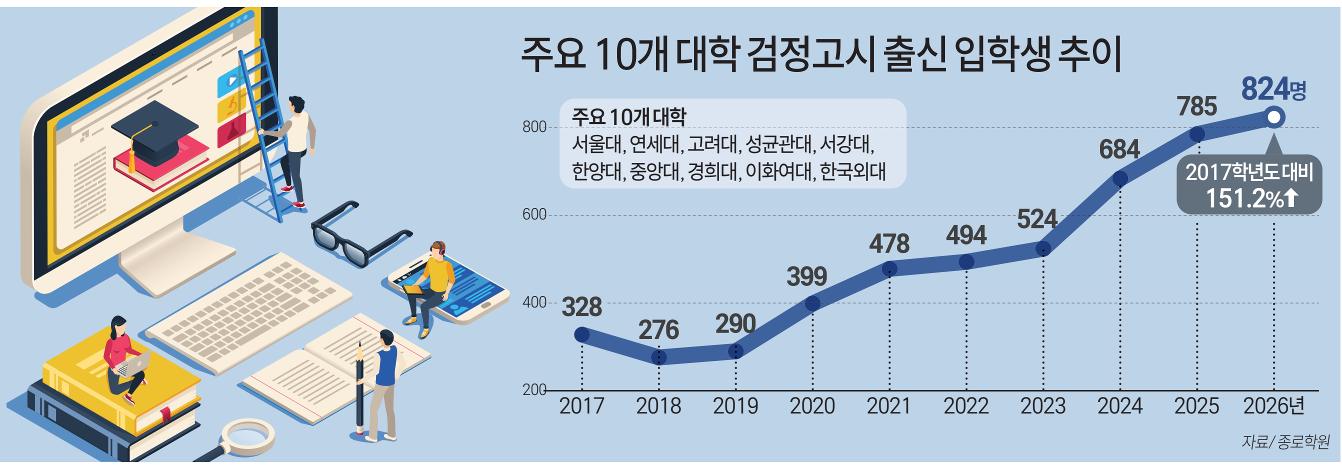
검정고시 출신, 명문대 벽 허물었다… 10년새 입학생 2.5배

주요 10개 대학 합격생 824명
전년비 39명 증가… 서울대 55명
대입전략으로 수능 중심 정시 택해



2026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10개 대학에 입학한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 824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도 55명으로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2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주요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전년도 785명보다 39명(5%) 늘어난 824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10개 대학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2017학년도 328명에서 2020학년도 399명, 2021학년도 478명, 2023학년도 524명, 2024학년도 684명, 2025학년도 785명으로 증가했다. 2026학년도 수치는 2017학년도보다 496명, 151.2% 늘어난 규모로 10년 사이 약 2.5배가 됐다.

전체 입학생에서 검정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학년도 0.9%에서 2026학년도 2.0%로 높아져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9%보다 0.1% 상승했다.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113명, 한국외대 93명, 한양대 78명, 고려대와 중앙대 각각 77명, 성균관대 76명, 이화여대 67명, 서울대 55명, 서강대 46명 순이었다. 경희대와 한국외대는 제2캠퍼스를 포함한 수치다.

서울대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을 기록했다. 서강대는 지난해 25명에서 46명으로 21명, 84%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희대는 116명에서 142명으로 26명, 22.4%, 서울대는 47명에서 55명으로 8명, 17% 증가했다.

반면 연세대는 지난해보다 9명 줄어든 113명, 고려대는 13명 감소한 77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두 대학 모두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세대·고려대·서울대 등 3개 대학 합계는 지난해 259명에서 올해 245명으로 14명 감소했지만, 나머지 7개 대학은 526명에서 579명으로 53명 증가했다.

서울대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은 2017학년도 19명에서 2026학년도 55명으로 약 2.9배가 됐다.

대학별 전체 입학생 대비 검정고시 출신 비율은 연세대가 2.5%로 가장 높았다. 경희대와 한국외대가 각각 2.3%, 서강대 2.2%, 한양대 2.1%로 뒤를 이었다. 중앙대와 이화여대는 각각 1.8%, 성균관대 1.6%, 서울대와 고려대는 각각 1.4%였다.

검정고시 출신 수능 접수자도 증가세다. 2026학년도 수능 검정고시 접수자는 2만2355명으로 전체 접수자의 4%를 차지했다. 인원과 비율 모두 2017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특히 2023학년도 1만5488명에서 2024학년도 1만8200명, 2025학년도 2만109명, 2026학년도 2만2355명으로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종로학원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대체로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을 주요 대입 경로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검정고시 수능 응시생이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수능 상위권 검정고시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대입에서의 내신 비중 강화 등이 맞물리는 2028학년도 이후에는 현재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성수대교 남단 램프 포장 걷고 지반 점검

서울시, 29일 밤 전면 통제
단차 원인 파악 위해 현장시험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DB

서울시가 성수대교 남단 램프 진입부에서 발생한 단차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제거하고 지반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을 위해 29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당 램프가 전면 통제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9시부터 구조·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성수대교 남단 램프 진입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차가 발생한 지점은 교량 본체가 아니라 흙을 쌓아 만든 접속옹벽 구간이다. 시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한 뒤 포장 아래 구조물 상태와 접속옹벽 지반의 지지력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험 대상은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이동하다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남단 램프 구간이다. 현장시험이 진행되는 29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당 램프를 전면 통제한다. 인접한 올림픽대로 4개 차로 중 1개 차로도 일부 통제한다.

시는 현장시험을 마친 뒤 램프 진입부부터 교량 접속부까지 다시 포장할 예정이다. 차량이 단차 구간을 지날 때 발생하는 덜컹거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현장시험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종합해 시설물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과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측정 게이지 설치 등을 통해 구조물과 지반 상태를 점검했다. 현재까지 안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상이나 단차가 계속 진행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단차가 교량 구조물과 토사로 조성된 옹벽의 경계면에서 발생했으며 교량 본체의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0일 단차 발생 차로와 인접한 2개 차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GPR 탐사에서도 지하 빈 공간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차 발생 지점에 측정 게이지를 설치해 주 2회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환경특화 강소특구 2단계 확정

국비 100억 확보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기후기술 허브로 도약한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강소연구개발특구 종합평가에서 '인천 서해검단 강소연구개발특구'가 2단계 지원 대상에 최종 포함되었다. 이로써 시는 총 100억원의 국비를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이를 투입해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특화발전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인천 강소특구는 인천대학교를 중심으로 서구, 검단구, 미추홀구, 연수구 일대(2.17㎢)에 조성 중인 대한민국 대표 환경특화 거점으로 지난 2022년 지정 이후 총 2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ICT 기반 환경오염 처리 사업'을 집중 육성해 왔다. 그 결과 기술이전과 투자유치 등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평가받았다. 정부는 이 같은 뛰어난 성과를 인정해 지난 5월, 인천 강소특구에 대한 2단계 국가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특히 인천 강소특구가 배출한 유망 기업들의 글로벌 활약이 눈부시다.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 고기능성 천연소재를 개발하는 A사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20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고, 중기부 '아기유니콘'에 선정되며 누적 투자액 115.5억 원을 돌파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반의 폐기물 선별 자동화 혁신기업인 B사는 '2025 에디슨상 동상' 및 '2026 CES 혁신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186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하고 기후부 '예비 그린 유니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 푸드테크 기업인 C사 역시 글로벌 식품 서비스 기업과 100만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을 맺고 미국 병원 급식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인천시는 이 같은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 3월부터 2032년 3월까지 5년간 총 200억 원(국비 100억, 시비 100억)을 추가 투입해 '2단계 특화발전 사업'에 돌입한다. 2단계 사업은 1단계에서 다진 인프라를 기반으로, 철저한 현장 실증과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의 체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아울러 검단2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강소특구 생산거점 조성을 본격화한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경기도, 14개 도서관서 명사 릴레이 강연

뇌과학·문학 등 인문문화 콘텐츠

경기도는 오는 11월까지 도내 14개 시군 도서관에서 도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만나는 소통형 릴레이 명사 강연을 운영한다.

강연과 토론, 문화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의 문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강연은 뇌과학과 건축, 문학, 음악, 환경,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마련된다. 김포 마산도서관을 시작으로 과천 정보과학도서관과 성남 구미도서관, 수원 북수원도서관, 구리 토평도서관, 안성 중앙도서관, 의정부음악도서관, 시흥 소래빛도서관, 하남 위례도서관, 남양주 별빛도서관·진접푸른숲도서관, 의왕 백운호수도서관, 평택시립비전도서관, 안양 석수도서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강연에는 장동선 뇌과학자와 김경일·정재승 교수, 승효상 건축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김겨울·천선란·홍다경 작가 등이 참여한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 강연 주제와 일정은 도서관별 여건에 맞춰 조율해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도서관과 경기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단순한 일회성 특강이 아니라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민이 책과 강연, 토론, 문화체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기존 도서관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던 도민에게도 도서관 방문 계기를 제공해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부산, 9월부터 AI가 야간·휴일 민원 응대

전 직원 순환당직제 폐지

부산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본청 공무원의 순번제 야간·휴일 당직인 전 직원 순환당직제를 전면 폐지하고, 전담 인력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새 당직·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7년간 이어진 관행을 걷어내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그동안 청내에서는 당직 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과 다음날 대체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부산시는 구체적으로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을 증원 배치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스마트 관제 시스템과 연계해 야간·휴일 긴급 상황 초동 대응력을 강화한다.

AI 당직 시스템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24시간 자동 응대하고, 재난상황실은 재해·사고 실시간 모니터링에 집중하도록 했다. 대체휴무에 따른 업무 차질을 줄여 민원 처리와 대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